

러시아의 루블-위안화 결제체재 도입 관련 조사 보고

'14. 11. 28(금)
모스크바사무소

□ 러시아, 루블-위안화 결제체제로의 이행 추진 의사 천명

-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루블-위안화 결제체제로 이행하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달러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
- 푸틴 대통령 발언 이후 11.18일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Sberbank는 러시아 대기업 1개사와 위안화 신용대출을 최초로 개시
- 지난 10월,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화에 대하여 2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
- 러-중 양국의 중앙은행은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이용을 촉진시키고 달러 및 유로화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3년간 250억 달러에 이르는 루블-위안화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
- 러시아 드미트리 메디베제프 총리는 무역에서 개별국가 통화 사용이 7%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별국가 통화의 사용 필요성을 강조

□ 러시아와 중국의 자국 통화 결제체제로의 이행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

- 루스-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드미트리 베덴코프는 양국간 교역시 결제 가능한 통화의 증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낮추는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
- 특히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이 제한된 상황을 감안하면 위안-루블 결제체제로의 전환은 중요할 것으로 평가
- 컨설팅기업 아르카임 사장 알렉산드르 도로페예프는 미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따라 위안-루블

결제 체제로 이행 속도가 달라질 것이나, 미국이 국제시장에서 달러화 결제방식을 중용할 근거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

- 위안-루블 결제 체제로 이행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,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논평
- 투자기업 피남의 애널리스트 안톤 소로코는 장기적으로 국제 무역에서의 달러화 결제 감소로 달러화가 미국으로 재유입될 경우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
- EU 및 중국 등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최근 몇십 년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한 일이며,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세계 경제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

□ 러시아와 중국 간, 루블-위안화 결제 현황

- 모스크바 및 상해 거래소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루블화와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었으나, 지난 10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면서 급속도로 거래 증가
- 두 통화의 직접거래량은 9월 3억 700만 달러에서 10월 12억 달러로 급증, 특히 10월 16일은 2억 4,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져 역대 최대 일일거래량을 기록
- 반면, 중국은 아직 외환거래시 러시아 기업은 위안화만 사용하도록 제한
- 지난 9월 러시아 재무차관 알렉세이 모이세예프는 중국의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면 러시아-중국 간 교역량의 절반까지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
-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위안화 결제방식을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
- 세계 최대 니켈 생산업체인 노릴스크 니켈의 대표이사이자 공동 소유자인 블라디미르 포타닌은 지난 9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잉여자금의 일부를 홍콩 달러와 위안화 등으로 환전하였으며, 이를 적극 활용할 의사를 밝힘

- 한편, 러 대외무역은행(VTB) 극동지역 본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기업 간 위안화 결제 거래량은 올해 전년대비 73% 증가
- Sberbank 통화분석가인 이브게니 카브리레노코프는 루블-위안화 직접 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고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

자료원: 현지언론(Moscowtimes 등) 기사